

김문수 후보님,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

친일 전도사 김문수 후보는 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김 후보의 친일 발언이 또 확인됐습니다. “일본의 도움 아래, 우리가 포항제철을 만들고 현대자동차를 만들고 우리가 삼성전자를 일으켜 세웠고, 반도체를 지금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도움 없이는 반도체 못 만듭니다. 자동차도 못합니다. 여러분! 조선도 안 됩니다. 제철도 안 됩니다.”

2019년 전광훈 목사의 옆에 선 김 후보의 입에서 쏟아진 망언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과 현대, 포항제철이 일본 덕분에 컸습니까? 대한민국의 발전사를 일본의 은혜로 돌리는 김 후보의 망언은 국민적 자존심을 짓밟는 극언이자 역사를 능멸하는 망동입니다.

김 후보가 언급한 포항제철은 대한민국이 건설한 것입니다. 어제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세계 최고의 산업혁명가” 라고 극찬했는데, 어제 본인이 말한 세계 최고의 산업혁명도 일본 덕분이라는 말입니까?

현대자동차는 정주영 회장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로 세워진 것이고, 삼성전자 역시 이병철 회장의 리더십과 한국 기술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일궈낸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성취를 일본의 은혜로 돌리는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의 노력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김 후보의 일본 찬양은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2019년 일본은 수출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반도체 핵심 소재를 규제했습니다. 일본의 규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았고, 글로벌 IT 공급망까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야 했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급히 대체재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당시 경제부총리조차 국회의 질의에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 있어 우리 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래도 우리 기업이 일본 덕분에 클 수 있었습니까?

김 후보의 친일 바이러스는 우리 산업의 발전마저 일본의 은혜로 돌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기가 막힘을 넘어 김 후보의 극우 친일 역사관이 정말 무섭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대한민국은 일제 침탈에 맞서 선조들의 피와 눈물로 지켜낸 나라입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을 정당화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의 발전마저 일본의 은혜로 돌리는 준비된 극우, 검증된 친일파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습니다.

2025년 5월 26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